

보만론寶鬘論

용수보살

다림살리역경원

일러두기

『보만론』은 대학자 용수성인께서 지으신 것이다.

인도의 학자 즈나나가르브하와 티벳의 역경사 비구 루이깁첸이 번역 교정하여 확립하였다.

이후 인도의 학자 까나까와르마와 티벳의 번역가 빠찰니마닥이 3권의 인도원전을 대조하여 교정하였다.

한국어 번역은 깰첵달마린첸의 주석서 『보만론소』와 인도논사 미팜췌넨의 주석서 『보만광소』를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한국어 번역은 2016년 달라이라마 성하의 아시안법회 법문자료집으로 준비하였으며 티벳대장경역경원에서 발행한 1차 번역본인 박은정, 이지현 연구원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2016년 다람살라에서
양지애 번역

차 례

| | |
|----------------------------|-----|
| 1장 선취와 해탈의 인과에 대한 설명 ----- | 3 |
| 2장 선취와 해탈을 이루는 방법들 ----- | 29 |
| 3장 깨달음을 이루는 두 자량 ----- | 55 |
| 4장 왕의 도리 ----- | 81 |
| 5장 출가자와 보살의 행 ----- | 106 |
| 기도문 ----- | 132 |

제1장 선취와 해탈의 인과에 대한 설명

인도어로 라자 빠리카타 라뜨나 마라
 티베트어로 꺄뽀라 띨자와 린뽀체이 텡와
 한국어로 보만론 (보배로운 화환)

모든 부처님과 보살께 귀의합니다.

1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공덕으로 장엄하신 분
 일체 중생의 유일한 벗
 일체지자께 절합니다.

2

왕이여, 그대가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직 선한 법만을 말하겠노라.
 정법의 터전이 되어야
 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3

먼저 삼선취의 법을 설한 이후에
 최고선의 법을 설하오니
 삼선취를 얻고 나서야
 점차적으로 해탈이 가능해진다네.

4

선취란 행복이며
 최고선이란 해탈이니
 그 성취를 요약하면
 신심과 지혜라네.

5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갖춰야만 바르게 이해하니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은 지혜이나
 이에 앞서 신심이네.

6

욕망 증오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이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 법기法器라 하네.

7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
모두를 잘 살펴
나와 남에게 이로운 바를 알아
항상 실천하는 그는 현명한 자라네.

8

살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으며
거짓말 이간질 악담과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단속해야 하네.

9

탐욕과 성내는 마음
업과가 없다고 여기는 사견을
전부 끊은 것이 십선업이니
반대가 되는 것들은 악업이라 하네.

10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으로 해하지 않고 공손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 올릴 곳엔 공양과 자애심으로
요컨대 법은 이런 것이네.

11

몸을 학대하는 것만으로
 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남을 해하는 것을 끊을 수 없고
 남을 이익 되게 하는 것도 아니네.

12

분명한 보시 지계 인욕인
 정법의 큰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고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림(사견)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중생은

13

참기 힘든 끝없는 윤회의 황야에
 중생이란 나무로
 번뇌의 독에 휘감긴 몸은
 매우 기나긴 시간을 맴돌게 되네.

14

살생으로 단명하게 되고
 폭력으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도둑질로 재산을 잃고
 사음邪淫으로 원수를 맺네.

15

거짓을 말하여 비난을 받고
 이간질로 인해 벗과 멀어지며
 거친 말로 평판이 나빠지고
 쓸데없는 말로 신용을 잃네.

16

탐심은 마음의 희망을 꺾어 버리고
 악의는 두려움에 떨게 하며
 사건으로 나쁜 견해가 가득하고
 술을 마심으로 생각이 혼탁해지네.

17

보시를 베풀지 않으니 가난해지고
 잘못된 생업으로 사기를 당하며
 교만으로 미친한 가문에 태어나고
 질투로 품위를 잃네.

18

성냄으로 용모가 나쁘고
 현자에 묻지 않으니 어리석으며
 이런 사람의 과보는
 제일 먼저 악도로 가네.

19

불선이라는 것들의 이숙과¹로
알려진 모든 것에서
선은 알려진 모든 것에
그 결과가 반대로 발생하네.

20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것들로 생긴 업은 불선이고
탐진치가 없는 것에서
생긴 것은 선이네.

21

불선에서 모든 고통이 생기고
그와 같이 악도에 나며
선으로 인해 선취에 나고
모든 생에서 언제나 행복하네.

22

마음과 몸과 말로 짓는
모든 불선을 버리고
항상 선을 행할지니
이 법을 세 가지 법이라 말하네.

¹ 선 또는 악의 업력에 의해 생겨난 무기無記의 결과, 결과의 성질이 원인 그 자체와 다른 까닭에 이숙異熟이라 한다.

23

이 법으로 지옥 아귀와
 축생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천신과 인간에 속하여
 행복 재물과 권력을 얻네.

24

선정² 무량³ 무색⁴인
 범천 등의 안락을 누리게 되니
 이와 같은 선취의 법과 결과를
 요약하였네.

25

최고선의 법들 역시
 미묘하고 심오하게 드러나
 어리석은 이들은 들은 적이 없어서
 두려워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² 욕계의 미혹을 뛰어넘어 색계에 생겨나는 4단계의 명상, 초선에서 4선까지를 말함.

³ 한없는 중생을 어여뻐 여기는 이타 수행의 네 가지 마음.

⁴ 무색계에 있어 4단계적 경지, 선정수행에 있어 일체의 물질적인 속박을 받지 않게 된 경계를 4단계로 나눈 것.

26

‘자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나의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며
 어리석은 이들은 이처럼 두려워하고
 현명한 이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네.

27

이러한 유정은 남김없이
 나를 집착함에서 생겨났으며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일체 중생에게
 오로지 유익하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28

‘나는 존재한다 나의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이것은 정법의 뜻을 등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진여를 여실하게 완전히 알게 되면
 나와 나의 것이 생겨나지 않게 되네.

29

아집에서 생겨난 오온
 이 아집은 본래 거짓이니
 거짓된 씨앗으로 인한
 발생에 진실이 어디 있겠는가?

30

그처럼 오온이 진실되지 않음을 보아서
아집이 끊어지게 되고
아집들을 끊고 나면
그후로 온은 생겨나지 않네.

31

거울에 의지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그것은 실제로
전혀 존재하는 바가 아니듯이

32

그처럼 오온에 의존해
아집을 인식하게 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네.

33

거울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듯
오온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아집도 그와 같다네.

34

아난존자께서 이와 같은
의미를 들으시고
법안法眼을 얻으시어 스스로
비구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네.

35

“온을 집착하는 한
언제나 거기에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나네.

36

세 길⁵로 시작 끝 중간이 없이
윤회의 불바퀴는
원형의 불처럼
서로 원인이 되어 돌고 돌게 되네.

37

자타 모두와 삼세에도
자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아집이 다하게 되면
그로부터 업과 생도 다하네.”

⁵ 번뇌, 업, 생

38

그와 같이 인과의 발생과
 그러한 것들이 소멸함을 보아서
 세간을 진실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네.

39⁶

모든 고통을 다하게 하는
 이 법을 듣고서 고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외처無畏處를 두려워하는 것은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까닭이네.

40

열반에 이러한 오온들이
 없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나와 나의 것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째서 그대는 두려워하는가?

41

해탈에는 무아이며 온이 없으니
 만일 해탈이 그와 같다고 인정⁷하면

⁶ 설일체유부의 주장-무여열반을 성취하면 의식의 상속이 끊어진다.

⁷ 귀류중관파와 지립중관파의 공통적 학설에 따르면 번뇌장은 끊었지만 유류의 온을 버리지 못한 아리한의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말하며, 윤회하는 유류의 온을 버리게 되는 순간 “무여열반”에 들어선다고 주장한다. 지립중관파에 의하면 성문승을 거치지 않고 대승에 바로 입문한 경우 제10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해탈도에서 소지장과 번뇌장을 함께 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귀류중관파의 독창적 학

자아와 온을 제거하는 것을
어째서 그대는 싫어하는가?

42

열반이 실체가 없다거나
아니라면 그 실체는 어디 있는가?
실체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끊는 것이 열반임을 알아야 하네.

43

요컨대 없다고 보는 것은
업의 과보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복덕이 아닌 악도로 향하는 것이니
이를 사견이라 말하네.

44

요컨대 있다고 보는 것은
업의 과보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복덕인 선취의 원인에 부합하는 것이니
이를 정견이라 말하네.

설로 “무여열반”이란 공성을 지각하고 있는 선정에 든 상태로 즉, 실집의 현현이 없는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제8지의 해탈도에서 무여열반을 성취한다고 하며 제8지의 후득지, 즉 선정에서 깨어 나면 실집의 현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여열반”이라고 한다. 귀류논증파는 제8지에서 번뇌장을 비로소 끊는다고 한다.

45

실상을 앎으로써 유무가 소멸한 까닭에
 악업과 복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악도와 선도에서 해탈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46

원인이 있어 생겨남을 보고서
 없다는 것에서 벗어나며
 원인이 있어 소멸함을 보고서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네.

47

앞선 발생과 동시 발생은
 원인이 아니며 진실로 원인이 없는 것이니
 가립과 실제로도
 발생함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네.

48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듯이
 이것(무명)이 있다면 이것(업)이 생겨나며
 등불을 밝히면 빛이 있듯이
 이것(무명)이 있다면 이것(업)이 생겨나네

49

긴 것이 있어야 짧은 것이 있듯이
 자신의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니
 등불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과 같다네.

50

그와 같이 인과의 발생을 보고
 이 세간이 그와 같이
 희론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인정하여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하네.

51

적멸을 희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참된 실상이 된 것으로 인정하면
 자성으로 있다고 할 수 없게 되니
 따라서 양변을 의지하지 않을 때 벗어난다네.

52

멀리서 보이는 물체를
 가까이 있는 이들이 정확하게 보듯
 신기루가 만일 물이라면
 가까이 있는 이들이 왜 보지 못하겠는가?

53

멀리 있는 이들은
 이 세상을 진실로 보지만
 그와 반대로 가까이 있는 이들은 진실로 보지 않으니
 실체 없는 신기루와 같다네.

54

마치 신기루가 물처럼 보여도
 물이 아니며 실제로 물이 아니듯이
 것처럼 오온이 나와 같아도
 그것들은 자아가 아니며 실재로도 아니네.

55

신기루를 가리켜 ‘이것은 물이다’라 여겨
 물로 간주하는 것보다
 만일 ‘물이 없어졌다’고 여긴다면
 더 어리석은 것이네.

56

이같이 신기루처럼
 ‘세간이 있다거나 없다’고 집착하는 것은
 우매한 것으로
 어리석음이 있다면 벗어나지 못하네.

57

없음을 주장하는 이들은 악도로 가고
 있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선도로 가며
 바르게 있는 그대로를 전부 알게 되면
 양변에 의지하지 않고 해탈하게 되네.

58

바르게 있는 그대로를 전부 알아서
 없음과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로 인해 무론자가 된다면
 어찌 유론자는 되지 않겠는가?

59

만일 유를 반박하여
 ‘실제 이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와 같이 무를 반박하여
 ‘있다’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는가?

60

무엇도 본질적으로 없다고
 주장하거나 운용하지 않으며
 깨달음에 의지하므로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들을 어째서 없다고 말하는가?

61

보특가라를 오온으로 말하는
 세간의 상키야(수론과) 바이세시까(승론과)와
 자이나교(나형과) 등에서
 만약 유무의 초월을 말하는지를 물어보라.

62

그러므로 부처님들의 가르침은
 둘이 없는 유무를 초월한
 심오함이라 말하며
 법의 특성임을 알아야 하네.

63

소멸되면 가고 옴이 없고
 한 순간도 머물지 않으니
 삼시를 여윈 내가
 실제 어디에 존재하는가?

64

왜냐하면 둘 다 진실로
 가고 옴과 머물름이 없으니
 그러므로 세간과 열반의
 본래 차이가 무엇인가?

65

머뭇이 없는 까닭에
 생과 멸도 진실이 아니라면
 생주멸生住滅이
 실제 어디에 있는가?

66⁸

만일 항상 변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찰나가 아닌 사물이겠는가?
 만일 변화가 없다면
 본질적으로 다름이 어디 있겠는가?

67

한 부분 혹은 전체가 소멸해서
 찰나가 되는 것이라 하면
 다름은 볼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다 논리에 맞지 않네.

68⁹

찰나라 하면 완전체가 없으므로
 오래된 무엇이 있겠는가?
 불변이 찰나가 아니라 하면
 오래된 무엇이 있겠는가?

⁸ 비이세사까의 주장을 반박 - 작용을 하는 영원불멸의 사물이 있다고 주장.

⁹ 비슈누파의 주장을 반박하다 - 오래된 불멸의 조물주가 있다는 주장.

69¹⁰

시작과 중간과 끝도
 찰나처럼 생각해야 하니
 그처럼 세 가지 찰나가 주재主宰하므로
 세간은 찰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70

시작 중간 끝도
 찰나처럼 생각한다면
 시작 중간 끝은
 자성으로부터 성립한 것도 아니네.

71

다수이므로 하나가 아니고
 부분이 없다면 무엇도 없으며
 하나가 없이는 여럿이 없고
 유가 없이는 무도 없네.

72

만일 소멸이나 대치로써
 ‘존재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존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소멸이나 대치가 어떻게 있겠는가?

¹⁰ 이미 생겼으나 소멸되지 않은 상태의 1찰나가 있고, 1찰나는 2찰나에서 소멸되므로 1찰나에서 소멸되지 않고 2찰나까지 머무는 찰나의 자성이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73

그러므로 열반으로 인해
 세간이 실제로 줄어들지 않으며
 ‘세간은 끝이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네.

74

그처럼 심오한 법이기 때문에
 근기가 아닌 중생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런 연유로 현명한 이들은
 일체지자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알았네.

75

그처럼 해탈의 심오한 법은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고
 무주처’라고 원만하신 부처님,
 일체를 보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셨네.

76

대상이 없는 이 법이 두려워
 중생은 의지할 곳을 좋아하고
 유와 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이들은 낙심하게 되네.

77

두려울 것 없는 해탈의 주처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타인도 망가지게 하니
 왕이여, 그러한 과멸로
 절대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78

왕이여, 그대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출세간의 이치를
 유무에 의지하지 않고
 여실한 말씀에 의거해 설하겠노라.

79

죄악과 복덕의 행위를 넘어서
 심오함을 해설한 뜻을 지니면
 이교도와 자신도
 무주처의 두려움을 겪지 않네.

80

인간은 흙이 아니고 물이 아니며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허공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그것 외의 인간은 무엇인가?

81

인간은 여섯 요소¹¹가 모인 까닭에
 실체가 아니고
 그와 같이 각각의 요소 역시
 모인 까닭에 실체가 아니네.

82

온은 자아가 아니며 자아도 온이 아니고
 온에 자아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니
 온과 자아가 불과 장작처럼 섞인 것도 아니므로
 자아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83

3요소는 흙이 아니며 흙도 3요소가 아니고
 3요소는 흙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니
 각각도 그와 마찬가지로인 까닭에
 요소들도 자아와 같이 거짓이네.

84

흙 물 불 바람은
 각각 본질로 없으며
 셋이 모두 없으므로 하나 하나가 없고
 하나가 없으므로 또한 셋도 없네.

¹¹ 흙地, 물水, 불火, 바람風, 허공空, 식識

85

만일 셋이 없어 하나 하나가 없고
 하나가 없어 역시 셋이 없다면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모임이 생기겠는가?

86

만일 각각 자체적으로 존재한다 하면
 떨감이 없는 불이 어째서 없는가?
 움직임 걸림 모임과
 물 바람 흙도 그와 같다네.

87

만일 이 불이 보편적인 것이라 하면
 그와 같이 그대는 나머지 3요소 자체가
 서로 의존하며 발생하는
 법들과 달리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네.

88

각각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존재하는가?
 각각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존재하는가?

89

각각 자체적으로 있다고 하면
 어딘가 그 하나에 나머지들이
 혼합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로 머뭇이 없고
 섞인 것들은 각각 자체적으로 있지도 않네.

90

각각 자성이 없는 요소들이
 각각의 자상自相이 어디에 있겠는가?
 각각 자성이 없는 요소들은 비중도 없어
 표상들을 세속이라 말하네.

91

빛깔 소리 냄새 맛 감각들도
 이러한 이치이니
 눈과 의식이나 형색들과
 무명으로부터 생생과

92

행위자로부터 행위의 범주에 속한
 인과와 시간과 짧고 긴 것을 비롯한
 인식대상과
 이름과 이름을 가진 것도 그와 같다네.

93

흙 물 불 바람

길고 짧음 가늘고 두꺼움과

선 등은 (공성을 지각하는) 의식으로
차단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94

의식은 설명할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니

흙 물 불 바람 4요소가

주처를 얻지 못하네.

95

의식에서

길고 짧으며 얇고 두꺼운 것

선과 불선과 명색名色 조차

남김없이 끊어지네.

96

그러므로 무지로 인해

이전에 생겨난 모든 것은

실상을 알게 된다면 의식으로

그후에 것처럼 차단되네.

97

의식은 장작불처럼
 중생의 모든 법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여실히 식별하는
 빛으로 태워서 소멸시킨다네.

98

무지로 인해 이전에 분별하였고
 이후에는 진여를 깨달았으며
 사물을 얻지 못하는 그 때
 비사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99

형색인 사물은 이름뿐인 까닭에
 허공 또한 이름일 뿐
 요소가 없는데 색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이름뿐이네.

100

느낌受 생각想 반응行 의식識이
 요소 등과 자아처럼
 무자성임을 생각할지니
 따라서 6요소는 실체가 없네.

제 2장 선취와 해탈을 이루는 방법들

1

바나나 나무 껍질들을
 남김없이 전부 벗겨내면
 아무 것도 없듯이 유정도 역시
 요소를 해체하면 그와 같아서

2

일체법이 무아임을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
 6요소 모두 실체가 없음을
 그대에게 단언하네.

3

그와 같이 아와 무아를
 실상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니
 아와 무아가 실재한다는 견해를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부정하셨네.

4

보고 듣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진실도 거짓도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자성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반대의 측면이 된다면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도 아니네.

5

그래서 승의에서는
이 세간이 진실과 거짓을 초월하며
그런 이치에서 진실로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네.

6

무엇이던 간에 그와 같이 모든 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체지자께서는
끝이 있거나 끝이 없거나 양자이거나
양자가 아니라고 설하셨네.

7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듯
미래에도 오실 것이며 현재에도 머물러 계시고
중생이 한량없어
그로 인해 삼세에 머무시네.

8

세간이 더 늘어나는 원인이 없는데
 중생의 다함이 삼세에 가능하다면
 일체지자께서는 어째서 그 같은
 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9

범부에게 비밀로 하신
 그것은 심오한 법이니
 세간이 오직 환영과 같을 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감로인 가르침이네.

10

환영인 코끼리에게
 생멸이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실로 진실된
 생멸은 없네.

11

그와 같이 환영과 같은 세간에
 생멸이 보일지라도
 승의에서는 생멸이
 존재하지 않네.

12

환영인 코끼리는

어디에서 온 것도, 가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미혹한 정도에 지나지 않기에
 진실로 머물지 않네.

13

그와 같이 환영과 같은 세간은

어디에서 온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니
 마음이 미혹한 정도에 지나지 않기에
 진실한 상태로 머물지 않네.

14

그와 같이 삼세를 여인 본질은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있다거나 없어지는
 세간이 실로 무엇이 있겠는가?

15

부처님께서 그러한 이유에서

끝이 있거나 끝이 없거나
 양변과 양변이 아닌 이 네 가지로
 설하지 않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네.

16

한편 이 육신은 부정한 것으로
 거칠고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항상 보이는 것일지라도
 마음에 머무는 것은 아니네.

17

그러한 때 정법이 대상이 없고
 미묘한 법은 범부의 지각 대상이 아니어서
 심오한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쉽게 떠오르게 되겠는가?

18

이 법이 심오한 까닭에 범부들이
 알기 어렵다고 보시고
 그러한 까닭에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법을 설하려 하지 않으셨네.

19

이 법을 잘못 알게 된다면
 지혜롭지 못한 이들은 헛되다고 여기고
 이와 같이 없다는 견해로
 더러운 악도에 침몰하게 되네.

20

게다가 그 법을 잘못 이해하고 나서
 지혜가 있다는 자만에 빠진 어리석은 자는
 공성을 부정함으로써 도리없이 자신은
 무간 지옥에 거꾸로 떨어지네.

21

마치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
 목숨을 해치게 되고
 잘 섭취하므로 무병 장수하며
 건강하고 편안해지듯이.

22

그와 같이 잘못 인지함으로 인해
 그르치게 되고
 제대로 아는 것에서 행복과
 위 없는 깨달음을 얻네.

23

그러므로 공성을 부정하는 것과
 없다는 견해를 버리고
 모든 뜻을 성취하기 위해
 바르게 이해하기를 매우 신중하게 행하소서.

24

이 법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아집이 뒤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 선업과 불선업으로부터
 좋고 나쁜 생을 받네.

25

그러한 까닭에 아집을
 없애는 이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보시와 지계와
 인욕의 법을 공경히 행하소서.

26

행위들에 앞서 법을 지니고
 중간에도 법을 지니며
 마지막에도 법을 지녀 수행한 왕에게
 이생과 다른 생에 해가 없네.

27

법으로 인해 이생의 명성과 안락함과
 생전과 죽음이 임박해도 두려움이 없으며
 다음 세상에서도 안락함이 변성할 것이니
 그러므로 항상 법에 의지하소서.

28

법은 바른 제도이니
 법으로 세간은 매우 기뻐하고
 세간이 기뻐할 뿐 아니라
 이생과 다른 생에도 헛됨이 없네.

29

법이 아닌 것을 규범으로 강요하는 것은
 세간이 기뻐하지 않게 되고
 세간이 기뻐하지 않는 까닭에
 이생과 다른 생에서도 기쁨이 없네.

30

허무하다는 생각은 악도의 길,
 남을 속이는데 전념함은 크나큰 고통이 따르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의미를 이해하겠는가?

31

상대를 속이는데 전념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도리를 갖춘 것인가?
 그것은 수천 생 동안
 오로지 자신을 속인 것이네.

32

적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더라도
 허물들을 버리고 덕에 의지할지니
 그로 인해 그대가 자신의 이익을 얻게 되고
 적도 역시 저항하지 않게 되네.

33

보시와 듣기 좋은 말과
 이로움과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할지니
 그러한 것으로 세간과
 법도 섭수하소서.

34

왕들에게도 그와 같이
 진실된 하나로 굳건한 신뢰가 생기고
 그와 반대되는 거짓으로
 큰 불신이 생긴다네.

35

속임이 없는 것이 진실이니
 마음이 변질되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타인을 오직 이롭게 하기에 진실이니
 이롭지 못하다면 반대인 거짓이네.

36

왕의 허물들이
 드러난 보시 하나로 전부 감춰지듯
 그와 같이 인색함도
 그런 모든 공덕을 부숴버린다네.

37

내면의 평온은 심오하기에
 최상으로 공경하게 되며
 공경함으로써 지엄함에 말씀 또한 듣게 되고
 그러므로 평온을 의지하소서.

38

지혜를 갖춤으로 마음이 꼬달리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 않으며
 굳건해서 속임에 빠지지 않나니
 왕이여, 그러므로 지혜를 닦는데 전념하소서.

39

진실 보시 평온 지혜의
 네 가지 선을 갖춘 왕은
 네 가지 선과 같이
 천신과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네.

40

편안하게 말하고
 밝아진 지혜와
 때묻지 않는 연민심과 함께 한다면
 언제나 지혜와 법도 향상되네.

41

이롭게 말하는 것은 드물고
 이로운 말을 듣는 것은 더욱 드물며
 그보다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롭게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이네.

42

그와 같이 귀에 거슬려도
 이로움을 알고서 속히 실천할지니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을 소중히 한다면
 참기 힘든 쓴 약이라도 마실 수 있네.

43

목숨 건강과 왕권 등이 무상한 것임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바른 정진을 갖추어
 법을 한결같이 신중하게 실천하소서.

44

필연코 죽게 되고
죽고 나서는 죄업으로 고통 받음을 보시고
잠시 안락하더라도
죄업을 지어서는 안되네.

45

어떤 일부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을 느끼듯
만일 한편에 마음을 둔다면
그대여, 다른 한편에는 어째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46

술로 인해 세간 사람들이 멸시하게 되고
정무를 망치며 재산도 탕진하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져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게 되니
그러므로 항상 술을 끊도록 하소서.

47

도박은 탐욕과 미움과
성냄 교활함을 생각하게 하는 근원이며
거짓과 허튼소리의 원인이니
그러므로 항상 금하도록 해야 하네.

48

여인을 탐착함은 대부분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모함에서 생기나
 여인의 몸은 실제로는
 깨끗함이란 조금도 없네.

49

입은 냄새 나는 침과
 치석이 가득한 더러운 그릇이며
 코는 코딱지와 콧물의 그릇이고
 눈은 눈곱과 눈물의 그릇이네.

50

뱃속은 똥 오줌과
 폐와 간 등을 담은 그릇이지만
 미혹함으로 여인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녀의 몸을 탐하는 것이네.

51

무지한 어떤 이들이
 더러운 단지의 장식을 탐내듯
 세간의 어리석고 미혹함으로
 여인들을 그와 같이 여긴다네.

52

몸은 심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애착을 여의게 하는 원인인데도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매우 탐착하니
 무엇으로 애착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53

돼지가 대소변 덩어리와
 더러움을 탐하듯
 그와 같이 똥 오줌의 그릇에 대한 애착은
 토사물을 향한 돼지의 애착이네.

54

몸똥이에 배설물이 나오는
 구멍이 뚫린 모든 것을
 어리석은 범부는
 오로지 기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네.

55

그대 스스로 똥 오줌 등을
 하나같이 더럽게 보면서
 그것을 담아놓은 몸에 어떻게
 마음이 끌리는가?

56

피와 정액이 섞인
부정한 씨앗인 정수로 태어난
더러움의 본질임을 알면서도
무슨 애욕으로 이를 탐하는가?

57

더러운 무더기 분비액으로 젖은
피부로 덮인 여인과 자는 것은
여인의 요도 속에서
자는 것에 지나지 않네.

58

용모가 아름답건 추하건
늙거나 젊거나
여인의 몸 전체가 더러운 것이라면
그대는 무엇을 구별해 집착하는가?

59

설령 변이 색이 곱고
매우 신선하고 모양이 좋더라도
거기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듯
여인의 몸 또한 그와 같다네.

60

안은 찌었는데 바깥을 피부로 감싼
 실체는 부패한 송장으로
 보는 것도 너무나 역겨운데
 어째서 바로 보지 못하는가?

61

이 피부 역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옷과 같은 존재라 한다면
 더러운 무더기를 감싼 껍질과 같은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는가?

62

배설물이 가득 찬 단지는
 곱은 보기 좋을지라도 꺼려하면서
 더러움의 본질인 몸이 오물로 채워져 있는데
 어째서 싫어하지 않는가?

63

만약 그대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면
 향수 장신구 음식물 등
 깨끗한 것조차 더럽게 만드는
 이 몸을 어째서 싫어하지 않는가?

64

자신과 타인들의
 배설물을 싫어하듯
 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더러운 몸은
 어째서 싫어하지 않는가?

65

여인의 몸이 더러운 것처럼
 그대 자신의 몸도 그와 같으니
 그러므로 안팎으로
 애착을 버려야 함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66

아흠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이 몸을
 자신이 직접 씻으면서
 몸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대에게 말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67

누군가 더러운 이 육신을
 소재로 찬시를 읊는 것은
 야! 터무니없네. 야! 어리석네.
 아하! 낮 부끄럽네.

68

무지의 어둠에 가려진
 중생 대부분도
 욕망을 목적으로 싸우게 되니
 더러운 것을 목표로 싸우는 개들과 같네.

69

부스럼을 긁으면 시원해지지만
 그보다 부스럼이 없다면 더욱 편안하듯
 그와 같이 세간에 애욕이 있어 행복하지만
 애욕이 없다면 그보다 더더욱 행복하네.

70

만약 그와 같이 살핀다면
 그대여, 애착을 떠날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애욕은 줄어든게 되어
 여인을 집착하지 않게 되네.

71

단명 두려움 고통과
 지옥의 원인은 끊임없는
 짐승을 사냥한 것에서 오나니
 그러므로 항상 불살생을 굳게 행하소서.

72

모든 부분이 배설물로
 얼룩진 독사를 두려워하듯이
 무언가에 의해 중생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악한 의도라네.

73

큰 비구름 몰려오면
 농부들이 그러하듯
 무언가에 의해 중생이
 좋아한다면 그것은 선이네.

74

따라서 법이 아닌 것은 끊고
 산란함 없이 법에 의지할지니
 나 자신과 이 세간 사람들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75

그것의 뿌리인 보리심을
 수미산처럼 견고히 함과
 온 누리에 드리워진 자비심과
 양극단에 의거하지 않는 지혜라네.

76

대왕이여, 대장부의

32상이

어떻게 그대의 몸을 장엄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들으소서.

77

탑과 공양할 대상인 성인과
노장들을 잘 봉양함으로써
손과 발바닥에 길상인 수레바퀴가
새겨진 전륜성왕이 되리라.

78

왕이여, 항상 법을 살피고
바르게 받아들여 굳건히 행할지니
그로 인해 완전히 발바닥이 평평한
보살이 되리라.

79

베짚고 듣기 좋은 말과
도움과 뜻이 일치하는 행위로써
손가락 사이가 길상인 얇은 그물로
연결된 손에 무늬를 가진 이가 되리라.

80

최고의 먹거리와 마실 거리를
 많이 베푸는 것으로써
 길상인 손과 발은 부드럽고
 몸의 일곱 곳¹²도 역시 불룩하리라.

81

해하지 않고 방생한 것으로 인해
 몸은 아름답고 반듯하고 크며
 수명이 길고 손가락이 길며
 발꿈치가 원만해지리라.

82

바르게 취한 법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길상인 피부색은 좋고
 발의 복사뼈는 드러나지 않으며
 털이 위로 쓸려나는 상을 지니리라.

83

학문과 공예 등의 모든 학문을
 공경히 받아들이고 베푸는 것으로써
 그대는 사슴다리와 같은 장단지와
 총명하며 큰 지혜를 지니리라.

¹² 두 발등, 두 손등, 두 어깨, 정수리.

84

자신의 재물을 갖게 되면
 즉시 베푸는 청정행으로
 팔이 길쭉하고 널찍하며
 세간의 이끄는 자가 되리라.

85

서로 이별한 친속들을
 잘 화해시킴으로써
 길상인 남근이 오므라들어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현자가 되리라.

86

저택 깔개 장식품 등
 편리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보시함으로써
 순금빛의 티없는
 매우 매끄러운 피부색과 같이 되리라.

87

위 없는 권력을 베풀고
 도리에 따라 스승을 뒤따르면
 길상인 털구멍마다 오직 하나의 털이 나고
 얼굴의 미간은 백호로 장엄되리라.

88

듣기 좋고 유쾌한 말과
 선한 말로 화합함으로써
 그대는 둥그런 어깨와
 상체는 사자와 같이 되리라.

89

병자들을 보살피고
 돌봄으로써 양 어깨가 넓고
 자신은 고요히 머물며
 최상의 맛을 느끼게 되리라.

90

법다운 행위를 앞장서 행한 것으로 인해
 그대의 머리에 육계肉髻가 보기 좋게 위치하고
 니그로다나무¹³처럼
 너비와 길이가 바르게 되리라.

91

말이 진실되고 부드럽게
 오랫동안 말을 함으로써
 왕이여, 혀는 넓고
 범천의 음성을 가지게 되리라.

¹³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인도의 나무.

92

항상 끊임없이
진실된 말을 함으로써
불은 사자처럼 되며
수승하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93

특히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며
이치에 맞게 행함으로써
치아는 아주 희고 윤기 있는
고른 치아가 되리라.

94

이간질과 양설이 없는
말을 오랫동안 습을 들임으로써
길상인 치아는 40개로
행렬이 고르고 좋게 되리라.

95

탐·진·치가 없고
자애로써 중생을 돌봄으로써
눈은 영롱하고 감청색이며
눈썹은 소처럼 되리라.

96

그와 같이 요약한 원인을 포함한

32상은

사자 같은 대장부의

표상들임을 잘 아소서.

97

80종호는

자애의 원인과 상응하여 생기며

본서의 내용이 많아질까 하여

왕이여, 그대에게 설하지 않으리라.

98

모든 전륜성왕에게

이러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청정함과 아름다움과 빛남은

부처님들의 한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네.

99

전륜성왕의 32상과

80종호 중에 하나는

부처님을 향한 신심의 일부분에서

생긴 것이라 말하네.

100

수억 겁 동안
한결같이 쌓은 선으로도
부처님의 터럭 하나조차
생기게 할 수 없네.

101

태양의 빛이
반딧불들과 아주 조금 비슷한 것처럼
부처님들의 상호와
전륜성왕의 상호들도 비슷하네.

제3장 깨달음을 이루는 두 자랑

1

불가사의한 복덕에서
부처님의 상호가 생김을
대승의 경장으로부터
대왕이여, 그와 같이 들으소서.

2

모든 연각들로부터 비롯된 것과
유학有學¹⁴와 무학無學¹⁵에서 생겨난 것과
일체 세간의 모든 복덕들과
세계의 수만큼 무량한 것들인

3

그것의 열 배가 되는 공덕으로
털의 모공 하나가 이뤄지니
부처님 몸의 털에 모공은
전부 그와 같이 생긴다네.

¹⁴ 성문, 연각 혹은 대승 보살의 길에 들어선 상태로 계 정 해 3학을 닦는 단계.

¹⁵ 이 지위에 이르면 더 배울 것이 없으므로 무학이라 하고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애고 이라한괴를 얻은 부처의 지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4

몸의 털에 모든 모공이
 생기게 하는 일체 복덕
 그러한 것이 백 배가 되어서
 훌륭한 종호 하나를 이룬다네.

5

그 만큼의 복덕에 의하여
 왕이여, 훌륭한 종호가
 하나씩 완성되어 그와 같은
 80가지가 생기게 되네.

6

80가지 종호들을
 이루는 복덕 자량이 쌓인 것으로
 그것이 백 배가 되어
 대장부의 상호 하나를 이룬다네.

7

32상호를 이루는 원인인
 크나큰 복덕이 쌓인 것으로
 그것이 천 배가 되어서
 만월과 같은 백호를 이룬다네.

8

백호의 복덕들을
 십만 배 합한 것으로
 정수리를 보려 하나 볼 수 없는
 부처님의 육계가 생기게 되네.

9

육계의 백만 배 복덕이
 천만 배가 될 때
 십력을 지닌 법라法螺
 하나가 생김을 알아야 하네.

10

이와 같이 복덕은 한량 없지만
 세상의 모든 방향을
 시방으로 유추해서 전체를 말한 것처럼
 범위가 있는 일부만을 말하였다네.

11

부처님의 색신의 원인도
 그와 같은 세상처럼
 헤아릴 수 없는데 법신의 원인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12

모든 것에 작은 원인으로부터
 큰 결과가 생기게 된다면
 부처님의 원인은 무량함으로부터
 결과를 추측하여 확신할 수 있네.

13

요컨대 부처님들의 색신은
 복덕 자량에서 생긴 것이고
 법신은
 지혜 자량에서 나신 것이네.

14

이 두 가지 자량은
 부처를 얻는 원인이니
 요컨대 이러한 복덕과
 지혜에 항상 의지하소서.

15

바른 이치인 경전의 가르침은
 숨을 쉬게 하는 인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자량인
 이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네.

16

모든 방향에 허공과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끝이 없는 것처럼
 고통 받는 중생도 끝이 없네.

17

그러한 가없는 중생을
 보살의 자비와 사랑으로
 고통에서 이끌어 내어
 부처의 과위로 반드시 이르게 해야 하네.

18

발심한 상태로 견고히 지속되는 것은
 잠들지 않던 잠에 들던 간에
 바르게 발심을 세운 이후로
 하물며 방일해져도 유정들이

19

끝이 없는 까닭에 유정과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항상 지어야 할지니
 중생이 한량없는 까닭에 무량한 부처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네.

20

보살은 무량한 시간 동안 머물러
 무량한 몸 가진 이들을 위해서
 무량한 깨달음을 서원하고
 무량한 선업을 회구하네.

21

그러므로 깨달음이 한량 없지만
 무량한 네 가지의 자량으로
 머지않아
 어찌 성취하지 못하겠는가?

22

가없는 복덕이라는 것과
 가없는 지혜라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들을
 속히 없애도록 하소서.

23

악업으로 인해 악도에서 육신의
 고통 굶주림과 목마름 등이 생기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은 복덕으로
 다른 생애는 그러한 고통이 없네.

24

무지함으로 마음의 괴로움인
 집착 미움 두려움 욕망 등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이 바탕이 없음을 알기에
 그것을 속히 끊네.

25

몸과 마음의 고통이
 그와 같이 전혀 괴롭지 않다면
 설령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이끈들 어찌 수고롭겠는가?

26

고통은 짧은 시간도 견디기 어려운데
 오랜 시간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고통이 없고 무한한 시간 동안
 행복에 머무는데 무슨 해가 있겠는가?

27

그에게 육신의 괴로움이 없는데
 마음의 괴로움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는 연민심으로 세간을 구원하고
 그것만으로 오래도록 머문다네.

28

성불이 오래 걸리는 것임을 알아도
 현명한 자는 나태하지 않으니
 허물이 다한 공덕을 위해
 부지런히 항상 매진해야 하네.

29

집착과 분노와 무지의 허물을
 알고서 완전히 끊을지니
 탐진치를 끊은 공덕을
 알고서 공경히 의지하소서.

30

탐욕으로 아귀도로 나아가고
 성냄으로 인해 지옥도에 떨어지며
 무지로 인해 대부분 축생도에 가게 되니
 반대는 천상과 인간계라네.

31

허물을 끊은 공덕을 지님은
 선취자의 법이고
 지혜에 의해 집착을 끊음은
 해탈자의 법이네.

32

불상과 탑과 승원 등을
 공경의 표시로 광대하게 하고
 필수품들을
 널리 풍요롭게 하소서.

33

모든 보배를 사용한
 아름다운 모습의 불상을
 훌륭하게 그려진 연꽃 위에
 모시도록 하소서.

34

정법과 비구승가를
 모든 면에서 정중히 보살피고
 금과 보배 장식으로
 불탑들을 꾸미소서.

35

금 은 보화와
 금강석 산호 진주와
 사파이어 유리 터키석으로
 불탑에 공양하소서.

36

정법을 설하는 분들께 공양함은
 재물과 공경을 갖추어
 기뻐하실 것들로 하고
 6법¹⁶을 봉양하소서.

37

스승을 존경하며 귀하게 듣고
 시봉하며 뜻을 받들고
 보살들에게도 또한
 항상 공경으로 공양하소서.

38

다른 이교도에게 공경으로
 공양과 귀의 또한 하지 말지니
 어리석은 이들은 그러한 요소로
 잘못을 저지르고 집착하게 되네.

39

부처님의 말씀과 거기에서 비롯된
 경전들과 경권에 쓸
 묵과 붓들을
 가장 먼저 유정들에게 베풀어 주소서.

¹⁶ 불법승 계율 보시 천(天)을 염하는 것.

40

각 지역 승원에
 스승들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반드시 토지를 내려
 지혜가 향상되도록 하소서.

41

노인 어린이 병자와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전 지역의 의사와 이발사들에게
 전답의 보수를 주소서.

42

방사 정원 교량과
 연못 회관 물단지
 침구 음식 야채와 나무가 갖춰져
 어진 지혜가 나도록 하소서.

43

모든 마을과 사원과
 전 도성에 숙소와
 물이 가문 모든 곳에
 수로를 세우도록 하소서.

44

병자와 의지할 곳 없는 이
 고통으로 불쌍하고 미천하며 가난한 자들을
 연민심으로 항상 보살피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봉양하소서.

45

계절에 따라 생기는 음식과
 곡물과 과일
 그러한 것을 구하는 이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네.

46

신발 우산 거름망과
 가시를 빼내는 족집게와
 바늘 실과 부채 등을
 제방의 창고에 놓아 두소서.

47

세 가지의 약이 되는 열매와 열성인 약과
 버터 꿀 안약과
 해독제를 제방에 두고
 약의 처방과 주문도 기록하소서.

48

몸과 발 머리에 바르는 것과
 모포 작은 의자와 깔개와
 구리 항아리와 도끼 등도
 제방의 창고에 놓아 두소서.

49

깨와 쌀과 곡물 먹을 거리
 황사탕과 기름과 더불어
 작은 물단지를 시원한 그늘 아래
 적당히 물을 채워 두소서.

50

개미집의 입구에
 음식과 물과 사탕과 유채기름과
 곡물 덩어리를 항상
 성실한 이들이 주도록 하소서.

51

식사 전후로
 아귀, 개와 개미와
 새 등에게 편한 때에 맞춰
 언제나 먹을 것을 베풀소서.

52

재액과 흉작
 재해와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지역의 사람들을
 보살핌에 관대 하소서.

53

곤궁해진 농부들을
 종자와 음식으로 보살피고
 엄중히 세액을 감하고
 부분이라도 면해 주소서.

54

재산을 약탈 당하는 시달림에서 전부 구제하고
 세금을 면해주며 지나친 세율을 감해주고
 국경에 머무는
 교역상인들의 근심거리도 없애 주소서.

55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의
 도적들도 제압하고
 재화의 가치는 공평하며
 물가가 안정되게 하소서.

56

신하가 아뢰는 하나 하나를
 그대가 모두 잘 알아서
 세상의 치료사로 어디든 그 누구에게든
 그러한 모든 행을 항상 행하소서.

57

나에게 ‘무엇이 이롭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와 같이 그대에게 진지한 것처럼
 타인에게 ‘무엇이 이롭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그와 같이 그대는 진지하게 행하소서.

58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약과 숲의 나무처럼
 자신이 짧은 순간만이라도
 타인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소서.

59

일곱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유한 모든 재물을 베푸는 마음을 지닌
 보살들에게 복덕은
 허공과 같이 무량하게 생긴다네.

60

자태가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그녀를 구하는 이들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정법을 수호하는
 다라니를 각각 얻게 되네.

61

보석들로 치장한
 8만 명의 여인들을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함께
 부처님께서는 이전에 베푼셨다네.

62

다양한 물건과 빛나는
 의복 장신구 향수와
 영락瓔珞과 향유물들을
 거지들에게 인자하게 베푼소서.

63

누군가 법에 관해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면
 너무나 불쌍한 자이니
 그 즉시 법의 기쁨을 전한다면
 그보다 나은 최상의 보시는 없네.

64

누군가에게 독이 도움이 된다면
 독일지라도 그에게 베풀고
 최고의 음식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그것은 베풀지 않아야 하네.

65

독사에게 물렸을 때
 마치 손가락을 잘라야 이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설령 불편한 것일지라도 행하라고 말씀하셨네.

66

정법과 설법자에게
 그대는 최고의 공경을 표하고
 공경으로 법을 들으며
 법보시 역시 행하도록 하소서.

67

세간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말고
 출세간을 좋아할지니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공덕이 생기도록 하소서.

68

들은 법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뜻을 이해하며 낱낱이 판별하고
 스승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항상 존귀하게 여기소서.

69

바이세시까 등의 경서를 읽지 말고
 말다툼의 원인인 아만심을 끊으며
 자신의 공덕을 칭송하지 말고
 하물며 적일지라도 덕을 말하소서.

70

해를 입어도 말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쟁론화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 그리고 나 자신의 과오
 각각을 살펴보아야 하네.

71

현명한 자는 타인에게 무슨 허물이든
 언제나 고백하며
 그것을 스스로 완전히 끊고
 그 영향으로 타인도 끊도록 하네.

72

남이 나를 해하는 것을
이전의 업보라 생각해 화내지 말고
또다시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허물을 없애도록 하소서.

73

보답을 바라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며
고통은 홀로 감수하고
행복은 구하는 이와 함께 하소서.

74

천상의 풍족함을 갖추었더라도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아귀와 같이 곤궁으로 쇠락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소서.

75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국정이 기울게 되더라도
진실만을 항상 말하고
그것과 다른 말씀은 하지 마소서.

76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행하실 청정행에 항상 의지할지니
 그러면 존귀한 이여, 땅 위에
 뛰어난 귀감이 될 것이네.

77

그대는 항상 모두를
 잘 살피어 행동하고
 실상의 여실한 의미를 보아서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소서.

78

법으로 국정이 편안하고
 모든 시방에 명성이 드높아
 큰 천개天蓋가 생기게 되며
 신하들도 모두 예경하게 되네.

79

죽음의 조건은 많고
 생의 조건은 적어
 그러한 것들¹⁷로 죽기도 하니
 그러므로 항상 법을 행하소서.

¹⁷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과 약이라도 상황에 따라 죽음을 야기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

80

이와 같이 항상 법을 행한다면
 모든 세상과 자신이
 똑같이 편안해지고
 그것을 선이라 하네.

81

법으로 인해 편안하게 잠에 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게 되며
 내면에 허물이 없으므로
 꿈속에서조차 행복을 직시하네.

82

부모님을 효성으로 봉양함에 노력하고
 가장을 공경하며
 소유물은 잘 사용하고 인내하며 베풀고
 온화하며 이간질하지 않는 진실된

83

청정행을 일념으로 행함으로써
 신근神根¹⁸을 얻고 나서
 나아가 천신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므로 그와 같이 법에 의지하소서.

¹⁸ 천신의 눈眼, 코耳, 귀鼻, 혀舌, 몸身을 의미함.

84

작은 그릇에 300명의 음식을
 매일 세 번 보시한 것이
 자애심을 한 순간 일으킨
 복덕의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하네.

85

천신과 인간이 아끼게 되고
 그들이 수호하며
 마음이 편안하고 많은 안락을
 독과 무기로도 해하지 못하네.

86

애쓰지 않고도 뜻한 바를 얻고
 범천의 세상에 나게 되며
 만약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8가지 자법慈法の 공덕을 얻네.

87

유정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견고히 한다면
 수미산처럼 굳건한
 보리심을 항상 얻네.

88

신심으로 팔난¹⁹에 나지 않으며
 계율로 선한 생으로 나아가며
 공성에 습을 들임으로써
 모든 법에 무집착을 얻네.

89

산만함이 없음으로 정념을 얻고
 사유하는 것으로 현명함을 얻으니
 법과 설법자를 공경함으로 의미를 깨닫고
 법을 수호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리라.

90

법을 듣고 보시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한 것으로
 부처님들과 가까워지는
 서원을 속히 이루게 되리라.

91

탐착이 없으므로 뜻한 바를 이루고
 인색함이 없으므로 재물이 늘어나며

¹⁹ 법을 듣거나 수행할 여유가 없는 8가지 장애: 지옥 아귀 축생(고통이 심해서), 장수천(즐거움으로 구도심이 나지 않음), 감각기관에 결함이 있는 것, 불법과 인연이 없는 장소와 시대에 태어나는 것, 그릇된 견해를 품지 않은 것.

아만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되고
법을 감내하므로 다라니를 얻네.

92

다섯 가지 귀한 재료²⁰를 베풀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무외시를 베품으로
일체 마장이 들지 않으며
뛰어난 능력자가 되리라.

93

불탑에 등불 행렬과
어둠 속에 햇불과 등의
기름을 베품 것으로
천신의 눈인 천안통을 얻게 되리라.

94

탑에 공양으로 음악과
요령들을 올리고
법라^{法螺}와 북을 올리는 것으로
천신의 귀인 천이통을 얻게 되리라.

²⁰ 황설탕, 버터, 꿀, 참기름, 소금

95

타인의 과오를 쟁론화하지 말고
 몸이 불편한 이들의 곁함을 말하지 말며
 마음에서부터 언제나 보호한다면
 타인의 마음을 아는 타심통을 얻게 되리라.

96

신발과 탈 것을 베풀고
 겸손히 공경하며
 탈 것으로 스승을 모심으로
 뛰어난 신족통을 얻게 되리라.

97

법을 위하고 그와 같이
 경전의 의미를 기억하며
 허물없는 법보시로 인해
 세세생생을 기억하는 숙명통을 얻게 되리라.

98

만물이 무자성임을
 여실히 아는 바른 지혜로
 여섯 번째 신통인 모든 번뇌가
 다한 누진통을 얻게 되리라.

99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여의 지혜를 갖추고
 자비심에 드리운 수행으로
 최상의 모습을 갖춘 부처가 되리라.

100

여러 청정한 서원들로 인해
 불국토가 청정해지고
 부처님께 보배를 올리는 것으로
 무량한 광명이 전부 비추리라.

101

그로 인해 그 같은 업보가 정화되고
 인과의 상응을 알며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할지니
 그것만이 그대를 이롭게 할 것이네.

제4장 왕의 도리

1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어려운 왕은
 법이 아니고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하여도
 왕을 섬기는 자들은 대부분 칭송하네.

2

한편 다른 누구에게라도
 듣기 싫지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면
 큰 영토를 소유한 왕인 그대에게
 나 같은 비구가 하물며 무엇을 말하겠는가?

3

그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중생을 또한 가없이 여겨
 그대에게 듣기 싫지만 이익이 되는 것을
 나는 이와 같이 홀로 간곡히 말하리라.

4

진실하고 온화하고 의미 있고 적절한 것을
연민으로 때에 맞춰 제자에게
설하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하여 이것을 설하겠노라.

5

왕이여, 성냄이 없이
진실한 말을 하면
쾌적한 목욕물처럼
응당 들어서 전부 받아들여야 하네.

6

그대에게 내가 이생과
다른 생에도 유익한 것을
설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과 다른 이에게
이익 되는 이것을 행하소서.

7

구걸하는 자에게 이전에 보시를 행한 것으로
원하는 바를 얻게 된 후 보시하지 않는다면
보답하지 않고 집착함으로 인해
이후에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되네.

8

이 세간에서 고용인은 보수 없이
 여행에 가져갈 물건을 나르려 하지 않지만
 가난한 구걸자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다음 생에 백 배가 넘게 들어다 준다네.

9

항상 대 자비심과
 광대한 행을 기뻐할지니
 광대한 행에서 과보가
 모두 광대하게 생기게 되네.

10

왕이여, 미친한 이들이
 마음에서 생각조차 못한
 여법한 삼보의 의지처를
 명예와 덕을 갖추 짓도록 하소서.

11

여법한 모든 일에 부유한 왕이
 경이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후에 명예롭지 않게 되므로
 왕이여,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네.

12

넓고 크기 때문에 높은 이들은
 자만심을 버리고 환희심을 내게 하며
 낮은 이들은 위축이 되도록
 소유한 전부를 사용하소서.

13

죽음이 다가오면 그대는 소유한 모두를 버리고서
 힘 없이 어디론가 갈 곳을 찾아야 하니
 법을 위해 수행한 모든 것이
 그대의 앞에 다가올 뿐이네.

14

이전 군주의 모든 재산을
 새로운 왕이 통치하게 되면
 이전 왕의 법 안락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던가?

15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생에서 평안하고
 보시함으로써 다른 생에 평안하게 되나니
 사용하지 않고 보시하지 않아 낭비되어
 오직 고통만 있는데 어디에 행복이 있겠는가?

16

그대의 죽음이 임박할 때 파렴치한 신하는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새 왕을 바라며
 자애를 바라던 이들조차
 권력을 잃었기에 베풀지 않네.

17

그러니 자리에 있을 때
 속히 모든 재산으로 승원을 지을지니
 죽음의 지배자 안에 머무르는 것은
 폭풍 속에 놓여진 등불과 같네.

18

선왕에 의해서 지어진 승원, 법당 등
 다른 이가 지어서 현존하는
 모든 곳들도
 예전 방식대로 수호하소서.

19

그러한 곳들은 손상없이 선을 행하며
 규율에 머물러 닦고 불청객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진실하고 인내하며 다툼없이
 항상 정진하는 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20

시각장애인 환자 가난한 이들 보호자가 없는 이
 어려움에 처한 자 지체장애인
 그들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어렵지 않게 평등하게 얻도록 하소서.

21

법을 수행하는 자와
 다른 왕의 영역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수호해 주고
 적절히 잘 보살피소서.

22

모든 승원에
 법을 지도하는 자는 태만하지 않고
 탐하지 않으며 능숙하고 법에 맞는 대중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자를 임명하소서.

23

체제를 알고 법을 갖추며 온화하고
 청렴하며 친절하고 적의가 없으며
 가문이 훌륭하고 성품이 원만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신하를 임명하소서.

24

관대하고 탐내지 않으며 용감하고
 온화하며 물자를 적합하게 사용하고
 강직하며 항상 부지런하고
 법을 지닌 군 지휘관을 임명하소서.

25

법다운 성품과 청렴하고 은혜를 갚으며
 일에 대해 알고 경전에 정통하며
 도리를 갖추고 공정하며 품성이 온화한
 연장자들을 지도자로 임명하소서.

26

매달 그들로부터 그대가 거둬 들인 것과
 내보낸 것 모두를 들어야 하며
 듣고서 승원을 비롯한 기관들의
 모든 일을 그대가 명령하소서.

27

그대의 통치는 법을 위한 것으로
 명예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로써 매우 많은 결실이 있으리니
 그와 다르게 되면 결과가 무익해진다네.

28

왕이여, 오늘날 세간은
대부분이 서로 과멸시키니
어떻게 그대의 왕권과 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와 같이 들으소서.

29

견문이 넓은 연장자와 가문이 훌륭하며
식견이 있고 죄악을 멀리하며
친화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많은 자들을 항상 그대가 곁에 두소서.

30

과세와 투옥, 구타 등이
합당하더라도 그대는 하지 말지니
자비를 드리워
항상 보호하소서.

31

흉악한 죄를 저지른
유정일지라도 모두에게
왕 그대가 항상
오직 자비와 이로운 마음을 일으키소서.

32

흉악범, 살인자는
 더욱 가없이 여길지니
 본성이 퇴락한 그들도
 대자비의 대상이네.

33

매일 또는 5일 간격으로
 나약한 수감자를 풀어주고
 남은 이들에게도 적절히 행하며
 어떤 경우든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지 마소서.

34

그대가 누구도 풀어줄 마음이 없다면
 그로부터 법률이 아닌 것이 생겨나고
 법률이 아닌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죄를 쌓네.

35

수감자는 풀어줄 때까지
 이발사와 목욕과 음식과 마실 것과
 약을 갖추어
 편안하게 해 주소서.

36

자격이 못 되는 부족한 아들에게
 자격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비로 감화시켜야 하리니
 성냄과 재물로 되지 않네.

37

큰 분노로 살생한 사람은
 잘 살펴 보아서
 사형과 폭력을 가하지 말고
 지역으로부터 추방하소서.

38

자유를 보장하면서 모든 지역을
 시찰자의 눈으로 살피며
 항상 주의 깊게 알아차림으로써
 법에 부합되는 일을 하소서.

39

복전에 스스로가
 잘 보시 봉양 등을
 널리 적합하게 행하고
 나머지 이들에게도 적절하게 행하소서.

40

인내의 그늘을 가졌으며
 공경의 꽃이 활짝 핀
 수승한 보시의 큰 열매를 지닌 왕이라는 수목에
 백성인 새들은 의지하게 되네.

41

관대한 성품을 지닌 왕이여,
 위엄을 갖추면 만인이 좋아하게 되니
 마치 생강과 후추 등으로 만든
 두텁고 달달한 반죽 음식처럼

42

그와 같은 이치로 살피면
 그대의 통치는 쇠망하지 않으리니
 도리가 아닌 것은 하지 말고
 비법이 아닌 법이 되게 하소서.

43

왕정을 과거생에서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생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
 법으로 인해 자만해져 왕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이 아닌 것을 그대는 해서는 안 되네.

44

재물이 국정에 의해
 불미스러운 재원의 조달이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왕이여, 그와 같이 엄중히 하소서.

45

재물이 국정에 의해
 국가재원의 조달을
 누구든지 누릴수 있도록
 왕이여, 그와 같이 엄중히 하소서.

46

사대주의 땅을 얻었어도
 전륜성왕의 안락은
 몸과 마음인
 이 두 가지에 불과하네.

47

몸의 즐거움이란
 고통이 완화된 것일 뿐
 의식인 관념의 본성은
 분별에 의해 오로지 만들어진 것일 뿐이네.

48

세간의 즐거움인 모든 재물은
고통이 외형적으로 완화된 것일 뿐
오직 분별일 뿐이기에
그것은 진실로 무의미하네.

49

대륙과 나라와 지방과 집
가마와 자리 옷 등과
침구 음식 코끼리 말 여자
향유거리가 제각기 있네.

50

어느 순간 마음이 이러한 것에 빠지면
그때 그것을 즐거움이라 하고
다른 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으니
그때 다른 것들은 무의미해지네.

51

눈을 비롯한 5가지의 감각기관이
5가지의 대상을 인식할 때
동시에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네.

52

어느 대상이던 간에
 한 감각기관으로 인식하게 된
 그때 나머지 감각기관이 나머지를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의미가 없을 뿐이네.

53

감각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과거의 추억 대상을
 마음이 대상으로 삼아 인지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네.

54

이것은 한 감각기관에 의해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이니
 감각기관도 대상 없이는 존재하지 않고
 대상 또한 감각기관 없이는 존재하지 않네.

55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지해
 아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눈과 색에 의해서
 의식이 생긴다고 말하네.

56

과거와 미래의 대상들은
 감각기관을 포함해 실재 하지 않는데
 그 두 가지와 다름 없이
 현재도 실재하지 않네.

57

눈이 착란되어
 쥐불놀이인 불 바퀴를 인식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감각기관들이
 현재의 대상들을 인식하네.

58

감각기관들과 감각대상들이
 요소들의 자성을 인정한다면
 요소 각각이 실체가 없으므로
 이것들도 진실로 실체가 없네.

59

요소들이 각각 개별적이라면
 땀감이 없어도 불이 있는 격이 되어 버리고
 요소가 결합하면 각각의 특성이 없어지게 되니
 나머지 3요소도 그와 같음을 확신하네.

60

그같이 요소들이 두 가지 형태로도
진실로 없어서 모임도 진실로 없고
모임이 진실로 존재함이 없기 때문에
물질 또한 진실로써 존재함이 없네.

61

수受 상想 행行 식識 등
모두 각각으로
본성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승의에서도 실체가 없네.

62

고통이 외형적으로 완화된 것을
진실로 즐거움이라고 가정하고
그와 같이 즐거움이 파괴되어 생긴 것을
고통이라고 또한 가정하네.

63

그와 같이 자성이 없기에
행복과 마주하려는 탐착과
고통과 멀어지려는 탐착을 끊어야 하니
그리하여 그와 같이 보는 이, 해탈하게 되네.

64

무언가 마음으로 본다 할 때
 이름하여 마음이라 말하나
 마음의 요소들이 없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실체가 없어 동시에 생기는 것도 인정할 수 없네.

65

그와 같이 여실하게
 중생이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원인이 없는 불처럼
 머뭇이 없고 생을 받음이 없이 열반에 든다네.

66

그와 같이 보살들도
 공성을 보고서 깨달음을 결정코 원하니
 그들은 오로지 자비심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환생하네.

67

여래께서 대승에서
 보살의 자량을 설하시면
 그것에 전적으로 무지하고
 매우 혐오하는 이들은 비난하네.

68

공덕과 허물을 알지 못하거나
 공덕을 허물로 생각하거나
 또는 공덕을 혐오하는 이들이
 어찌 대승을 비난하는 것인가?

69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물로,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공덕으로 안다면
 대승을 비방하는 것은
 공덕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말하네.

70

자신의 이익을 보지 않고
 다른 이의 이익만을 좋아하는 것이
 공덕의 근원인 대승이니
 그렇기에 그는 악도에서 불타게 되네.

71

신심있는 자는 잘못 이해함으로써
 다른 쪽은 혐오하고 분노함으로써
 신심있는 자일지라도 악도에서 불탄다고 한다면
 혐오하는 쪽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72

마치 독으로 독을 없애는
 치료법이 있다고 말하듯이
 고통으로도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고 함에 무슨 모순이 있겠는가?

73

대상 이전에 마음이 선행되어
 마음이 주된 것이라 알려져 있으니
 고통조차 도움이 되는데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어찌 불이익이 되겠는가?

74

불편할지라도 나중에 이익이 될 것이기에
 행해도 된다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행복과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이 법은 오래된 이치라네.

75

만약 작은 행복을 모두 포기해서
 큰 행복을 보게 된다면
 왕이여, 큰 행복도 보게 되리니
 작은 행복은 포기하도록 하소서.

76

만약 그 또한 견뎌내지 못한다면
 의사와 같은 어떤 사람이
 쓴 약을 주어 잠시 괴로워도
 치료가 되는 이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네.

77

무언가 해가 되는 것에
 일부 현자는 이익이 있음을 보니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을
 논서들에서 모두 찬탄하네.

78

대승에서 자비로
 선행된 행과
 허물없는 지혜로 설한 것을
 생각있는 누가 그것을 비난하겠는가?

79

매우 넓고 심오한 법을
 게을러 자신을 닦지 않음으로
 자신과 남과 적들이 어리석어
 대승을 비난하네.

80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자비의 본질이며
 대승이라면 이런 까닭에
 여기에 허물을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81

지계와 보시는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한 것
 정진과 인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선정과 지혜는 해탈의 원인
 대승의 의미를 요약한 것이네.

82

자신과 다른 이의 이익과 해탈의 의미를
 요약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오직 육바라밀이니
 그러므로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네.

83

깨달음의 위대한 길은
 복덕과 지혜의 본질로
 부처님께서 보이신 이 대승을
 알지 못해 눈 먼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네.

84

공덕이 허공과 같이 무량하여
 부처님의 공덕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부처님의 본성은 위대하기에
 대승에서 설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네.

85

성자 사리불께서
 “부처님의 계율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처님의 본성은 위대하고 그것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함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86

대승에서 ‘생겨남이 없다’고 설하시고
 성문승에서 ‘다함’은 공성이니
 ‘다함’과 ‘생겨남이 없음’은 의미가 같기에
 받아들여야 하네.

87

공성과 부처님의 위대한 본성을
 그와 같은 이치로 따라 본다면
 대승과 성문승에서 말씀하신 것이
 현명한 이들에게 어찌 같지 않겠는가?

88

여래의 깊은 취지를 설한 것들은
 이해가 쉽지 않아 그런 까닭에
 일승과 삼승을 설하신 것이니
 중립적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네.

89

중립에 의해서는 죄가 되지 않으며
 혐오함에 의해 죄가 되고 선이 되지 않으니
 그러므로 대승을 적대시하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가 해서는 안될 일이네.

90

성문승에서는
 보살의 서원과 행과
 완전한 회향을 설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보살이 되겠는가?

91

보살의 깨달음을 위해 가피하시고
 성문승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셨으니
 이런 의미에 부처님보다
 더 나은 바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92

귀의처와 사성제와

37보리분법을 갖춘 도는

성문과 공통이 되는 것으로

부처님의 성취보다 무엇이 더 뛰어날 수 있겠는가?

93

보살행에 머무르는 뜻을

성문의 경에서는 설하지 않으셨고

대승에서 설하셨기에

그래서 현자들은 받아 지닌다네.

94

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글자의 날자도 읽게 하듯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법을 보이셨다네.

95

어떤 이에게는 죄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법을 보이셨고

어떤 이에게는 복덕을 짓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떤 이에게는 양자에 의지해서

96

어떤 이에게는 양자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이에게는 심오하고 두려운 공성과
 자비의 정수인
 깨달음을 이루는 법을 보이셨다네.

97

그와 같이 현자들은 대승에
 적대적인 마음을 없애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더욱 더 대단한 신심을 내야 하네.

98

대승에 특별한 신심을 내고
 거기에서 설한 것을 수행함으로써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모든 안락도 더불어 성취하네.

99

이 장에서 보시와 지계와
 인욕법은 특히
 재가자에게 설한 것이니
 자비의 정수인 이 가르침을 견고하게 수행하소서.

100

그러나 세간은 순탄하지 않기에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과 명성을 위해
그대는 출가자가 되어도 바람직하네.

제 5장 출가자와 보살의 행

1

그 다음 출가자는
먼저 계학을 공경할지니
별해탈계 율 등을 많이 듣고
의미를 확립하는데 집중해야 하네.

2

그리고 나서 미세한 허물도 알고
허물의 근원들을 끊어야 할지니
57가지로 알려진 것들을
힘써 반드시 살펴야 하네.

3

성냄은 마음의 혼란이고
이에 뒤따르는 것은 원한이며
은닉은 죄악을 숨기는 것이고
악의는 죄악에 집착하는 것이네.

4

아침은 현혹시키는 것이고
 기만은 일련의 속이는 마음이며
 질투는 다른 이의 덕을 괴로워하는 것이고
 인색은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네.

5

부끄러움이 없는 것과 수치심이 없는 것은
 자신과 남에게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오만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허물을 짓는 것은 분노로 오염된 것이네.

6

교만은 거만함이며
 방일은 선업을 닦지 않는 것이고
 자만에는 7가지 형태가 있으니
 그것을 잘 구별하여 설하겠노라.

7

여기에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보다
 하열한 이를 하열하다고, 동등한 이는 동등하다고,
 동등한 이보다 자신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스스로 뽑내는 자만自慢”이라 하네.

8

어떤 면에서든 자신보다 나은 이를
자기와 동등하다고 자만하는 것은
“더 낫다고 하는 자만過慢”이므로
우월한 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만하는 것이네.

9

자신보다 월등히 우월한 이를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만慢過慢”은
종기 위에 종창이
생긴 것과 같이 극악하네.

10

유루 5온이
공한 그것들을 무지함으로 인해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데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아만我慢”이라 하네.

11

과위를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뺨내려는 자만增上慢”이며
죄업을 지은 것을 칭송하는 것은
“삿된 자만邪慢”임을 현자는 안다네.

12

‘자신은 쓸모가 없다’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비하하는 자만卑下慢”이라 하니
 그것들을 요약하여 7가지를 말하였네.

13

위선은 재물과 명예를 위해
 감관기관을 단속하는 것이며
 아첨은 재물과 명예를 위해
 미리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네.

14²¹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다른 이의 재물을 칭찬하는 것이며
 강요하여 획득하는 것은
 얻기 위해 직접 다른 이를 질책하는 것이네.

²¹ 5종의 정당치 못한 수단: 생활의 수단을 얻을 때 출가수행자에게 금지된 것.
 1.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 2. 자기선전. 3. 점 등으로 길흉화복을 말하는 것.
 4. 호언장담하는 것. 5. 기득의 공양이나 신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여 탐하는 것.

15

재물로써 재물들을 바라는 것은
 이전에 받은 것을 칭찬하는 것이며
 허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이가 실수한 그것들을 반복해 말하는 것이네.

16

소심증은 스스로를 살피지 않아서
 병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중독은 자신의 좋지 않은 물품에
 집착하는 게으른 자에게 있네.

17

나와 남이 별개라는 생각은
 탐착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려진 것이며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관찰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네.

18

법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데
 게을러 공경이 쇠퇴한 것과
 스승에게 거짓됨이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나쁜 사람이라 하네.

19

집착은 작은 결박으로
 욕망의 애착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편집증은 욕망으로부터 생긴
 매우 큰 결박이네.

20

탐착은 자신의 재물을
 욕심을 내어 탐욕을 가진 마음이며
 다른 이의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탐착이라 하네.

21

끊어야 할 대상인 여자를 집착해 찬미하는 것은
 법이 아닌 집착이며
 과시는 덕이 없으면서도
 덕이 있는 척 꾸며대는 것이네.

22

큰 욕망이란 매우 탐착하는 것으로
 자족하는 덕에서 벗어난 것이며
 얻고자 하는 욕망은 나에게 어떤 면에서든지
 훌륭한 덕이 있다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네.

23

참지 못하는 것은 해를 입는 것과
 고통 역시 견디지 못하는 것이며
 도리가 아닌 것은 지도자나
 스승의 행동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네.

24

충고를 불편해 하는 것은
 법에 맞는 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친속과 관계된分別심은
 친속을 애착하는 것이네.

25

그처럼 대상을 애착하는 것은
 욕망으로 그 상대의 덕을 말하는 것이며
 죽지 않는다는分別심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네.

26

후에 인정받고자 하는分別심은
 자신에게 덕을 있다고 생각해
 어떤 면에서든 타인의 스승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네.

27

다른 이를 집착하는 분별심은
 다른 이의 것을 탐내는 것이며
 악한 의도란 이득이 되는 것과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네.

28

싫어함이란 견고하지 못함이며
 갈망은 오염된 마음이고
 권태감은 노력하지 않아서 생기며
 게으름은 애쓰지 않음이네.

29

변화는 번뇌에 의해
 몸과 빛깔이 변하는 것이며
 식욕부진은 과식함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것이라 말하네.

30

마음이 매우 낙담하는 것은
 마음이 위축되어 두려워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탐욕이란 5욕락²²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네.

²² 5감각기관의 욕망의 대상: 형상 소리 냄새 맛 신체적 느낌.

31

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과 친구와 적에게 삼시에 걸쳐 부당한
 해를 입혔고 입히고 있으며 입힐 것이라
 우려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마음이니
 9가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다네.

32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
 활동에서 멀어짐은 혼침이며
 수면은 잠이고 들뜸은
 몸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네.

33

늪우침이란 나쁜 짓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이후에 괴로워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며
 진실로 삼보를 향해
 마음이 돌이 되는 것은 의심이네.

34

그런 것들을 보살은 끊어야 하며
 계율에 정진하는 이들은 더더욱 끊어야 하고
 그러한 허물들에서 벗어나야
 공덕에 쉽게 의지하게 되네.

35

여기에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보살의 공덕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비 등이네.

36

보시는 자신의 재물을 전부 베푸는 것이고
지계는 다른 이를 이익 되게 하는 것이며
인욕은 분노를 끊는 것이고
정진은 선을 완전히 지니는 것이네.

37

선정은 일념으로 번뇌가 없는 것이며
지혜는 진리의 뜻을 확신하는 것이고
자비는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연민하는 지혜라 하네.

38

보시로 재물을, 지계로 행복을,
인욕으로 아름다움을, 정진으로 위엄을,
선정으로 적정을, 지혜로 해탈을,
자비로써 모든 목적을 성취하네.

39

이러한 7가지가 남김없이
 동시에 바라밀이 되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경계
 세간의 보호자를 성취하게 되네.

40

그처럼 성문승에서는
 8가지 성문의 경지를 말하고
 그와 같이 대승에서는
 보살의 10지地를 말하네.

41

그 중 첫 번째는 환희地歡喜地로
 보살이 환희하는 까닭인데
 3가지 결박²³을 끊었으며
 여래의 종성으로 태어나네.

42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보시바라밀에 뛰어나게 되며
 백 세간계가 진동하고
 남섬부주의 대자재가 되네.

²³ 살가야면과 수면이 따르는 의심과 계금취의 3가지 결박.

43

두 번째, 이구지離垢地란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인
 열 가지 전부에서 더러움이 없는 까닭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에 머무르기 때문이네.

44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지계바라밀에 뛰어나게 되고
 길상이며 7가지 보배²⁴의 주인인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전륜성왕이 되어
 유정들의 과계를 끊게 하는데 능통하네.

45

세 번째, 발광지發光地란
 평온한 지혜의 빛이 생기기 때문이며
 선정과 신통이 생겨나고
 탐착과 성냄이 전부 다했기 때문이네.

46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인욕과 정진을 더욱 수행하며
 지혜로운 제석천이 되어
 욕계의 탐착을 끊네.

²⁴ 금, 은, 유리, 파리(수정), 자거, 적주, 미노

47

네 번째, 염혜지焰慧地란
 올바른 지혜의 빛이 생기기 때문이며
 37보리분법을 남김없이
 특별하게 닦기 때문이네.

48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야마천왕이 되어
 신견身見에서 생겨난 것을
 전부 없애는데 능통하네.

49

다섯 번째, 난승지難勝地란
 모든 마군이 매우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며
 성스러운 진리 등 미세한 의미를
 앞에 능통하기 때문이네.

50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도솔천왕이 되어
 모든 외도인
 번뇌의 견해를 물리친다네.

51

여섯 번째, 현전지現前地란
 불법을 실현하기 때문이며
 지止와 관觀을 숙련함으로
 적멸을 얻어 광대해지기 때문이네.

52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화락천왕이 되어
 성문들이 능가할 수 없으며
 더 낫다는 증상만增上慢을 가진 자를 평정하네.

53

일곱 번째, 원행지遠行地란
 공덕의 수가 높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찰나찰나마다
 멸진정에 들기 때문이네.

54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타화자재천왕이 되어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위대한 최고의 스승이 되네.

55

여덟 번째, 동자童子의 경지인
 부동지不動地는 분별이 없기에 부동이니
 그와 같이 몸과 말과
 마음의 영역은 생각으로 가늠되지 않네.

56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소천세계의 주인인 범천왕이 되어
 아라한 독각 등이
 의미를 확립하는 데 능가할 수 없네.

57

아홉 번째, 선혜지善慧地는
 왕의 대리인과 같이
 어떠한 것도 구애 받지 않는 앎을
 얻게 되니 이것을 뛰어난 지혜라 하네.

58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중천세계의 주인인 범천왕이 되어
 유정의 생각을 물어봄에
 아라한 등이 능가하지 못하네.

59

열 번째, 법운지法雲地란
 정법의 비를 내리기 때문이며
 이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네.

60

그것의 성숙한 과보로
 정거천왕이 되어
 생각을 초월한 지혜 경계의 주인
 최고의 대자재가 되네.

61

이와 같이 열 가지는
 보살의 십지로 알려져 있고
 부처님들의 경지는 다른 것으로
 전반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62

그 광대함은 다만 열 가지 힘을
 갖춘 것만으로 설명되니
 그 힘은 각각으로도
 모든 중생의 수 같이 헤아릴 수 없네.

63

부처님들의 무량함은
 모든 방향의 허공과
 흙 물 불 바람처럼
 그 정도 밖에 말할 수 없으니,

64

만약 원인이 오직 그 정도만이라 해서
 무량함을 보지 못한다면
 부처님들의 무량함에
 거기에 믿음을 낼 수 없네.

65

그렇기 때문에 불상과
 탑 앞에서 혹은 다른 데서
 이 20가지 계송을
 매일 3번 독송해야 하네.

66 -1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와
 보살들께
 항상 공경으로 귀의하고
 응당 공양 받을 만한 분들께 절합니다.

67 -2

죄악들을 물리치고
 모든 복덕을 완전히 수지하며
 일체 유정의 복덕
 전부를 수희찬탄합니다.

68 -3

저는 머리 조아려 공경 합장하니
 법륜을 굴려 주실 것과
 중생이 머무르는 동안 머물러 주시기를
 원만한 부처님들께 간청합니다.

69 -4

그와 같이 행한 복덕과
 제가 지은 것과 아직 짓지 않은 것
 그로써 일체 유정도
 위 없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70 -5

일체 유정이 오염 없는 감관기관을
 온전히 갖추고 팔난 전부 벗어나서
 행은 자유롭게 되며
 바른 삶과 함께 하게 하소서.

71 -6

일체 유정이
 손에 보물을 가지고
 모든 물건은 한량없어
 윤회에서 다함 없게 하소서.

72 -7

모든 여성은 언제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일체 유정은 무아를 깨닫는 지력과
 계율의 다리를 갖게 하소서.

73 -8

일체 유정이 아름다운 빛깔을 갖추고
 좋은 몸과 큰 품위와
 보기 좋은 외모와 병이 없고
 힘을 갖추며 장수하게 하소서.

74 -9

모두 방편에 능하게 되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며
 삼보에 귀의하고
 불법의 큰 보물을 갖게 하소서.

75 -10

자애 자비 기쁨

번뇌 없는 평정에 머무르고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 장엄하며

76 -11

모든 자량을 완전히 구족하여

32상과 80종호를 현현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십지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77 -12

저 또한 그 공덕과

모든 다른 것으로도 장엄하며

모든 허물로부터 벗어나고

일체 중생을 최고로 자애하며

78 -13

모든 중생이 바라는

모든 선을 구족되게 하고

항상 유정들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79 -14

세간의 유정들

누구든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제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아주 사라지게 하소서.

80 -15

저를 보거나 떠올리거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유정들이 기뻐하며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
 완전한 깨달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81 -16

모든 생에 이어서

오신통을 얻고

일체 유정에게 무엇이든지

항상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하소서.

82 -17

모든 세간에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유정들

그들 모두 해하는 일 없이

항상 일제히 물리치게 하소서.

83 -18

흙 물 불 바람

약초와 적정처의 나무처럼

항상 모든 중생이

쉽사리 방해 받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

84 -19

유정들을 목숨과 같이 아끼고

저보다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그들의 죄가 무르익게 하시고

저의 모든 선이 그들에게 맺게 하소서.

85 -20

혹여 몇몇의 유정일지라도

벗어나지 못한 그 순간까지

설령 제가 위 없는 깨달음 얻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머무르게 하소서.

86

이와 같이 말한 모든 복덕이

만약 형태를 가진다면

갠지스강의 모래 수만큼의 세간에도

담아지지 않네.

87

이는 세존께서 말씀하셨으며
 그 까닭 또한 여기에서 보이니
 유정의 근기는 한량이 없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도 그와 같이 무량하네.

88

이처럼 내가 그대에게
 요약해 설한 법을
 그대에게 몸이 한결같이 소중하듯
 그와 같이 귀중히 여기소서.

89

누구든지 이 법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은 실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이익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법을 행하는 것이네.

90

그러므로 법을 자신과 같이 여겨
 법과 같이 성취를,
 성취와 같이 지혜를,
 지혜와 같이 현명한 자에 의지하소서.

91

청렴하고 자애롭고 지혜로운 자가
 도움이 되고자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라 의심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쓸모없이 망가뜨리네.

92

청렴하며 자애롭고 지혜로우며
 기개가 있어 도움이 되고자 말하는 이에게
 나는 보호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왕은 자신을 제어해 마음을 수양하소서.

93

선지식들의 자격을
 요약해서 알아야 하니
 만족할 줄 알고 자비심과 계율을 갖추고
 번뇌를 없앤 지혜를 지닌 자여야 하네.

94

그들이 그대에게 가르치려 하면
 그대는 알아서 공경해야 하며
 이러한 원만한 방식으로 비로소
 최상의 성취를 이루게 되네.

95

진실하고 말은 부드럽게 하며
 온화한 성품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도리를 갖춰서 업신 여기지 않으며
 자재하게 잘 말하소서.

96

잘 제어하고 주의 깊으며 나태함을 버리고
 위엄을 갖추며 마음이 고요하고
 들뜸이 없으며 지체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확고히 하소서.

97

보름달처럼 온화하고
 가을 해처럼 위엄을 갖추며
 바다와 같이 깊고
 수미산처럼 높고 견고히 하소서.

98

모든 허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공덕으로 장엄하며
 모든 중생의 생계가 되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소서.

99

이 법은 왕에게만
 설하는 것이 아니라
 유정에게도
 적절하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설한 것이네.

100

나와 다른 이들이
 원만한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해
 왕이여, 설한 것을
 매일 생각함이 마땅하네.

101

계율을 지키고 스승을 최상으로 공경하며
 인내하고 마찬가지로 질투심이 없으며
 인색함을 멀리하고 바라는 것 없이 행해서
 남을 돕고자 재물을 비롯해 빈곤한 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리라.

102

최상의 분들과 함께하고
 최상이 아닌 것은 버려야 하며
 정법을 온전히 수지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이와 같이 행해야 하리라.